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평가

이여진¹ · 강현숙² · 권성복³ · 김주현⁴ · 박영숙⁵ · 손행미⁶ · 이은희⁷ · 임난영⁸ · 조경숙⁹ · 한혜자¹⁰

¹가천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경희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³동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⁴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⁵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⁶울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⁷강릉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⁸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⁹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¹⁰신성대학 간호과 부교수

Evaluation of the Korean Formal Educational Program for Training Care Workers for Frail Elderly

Yi, Yeo-Jin¹ · Kang, Hyun-Sook² · Kwon, Sung-Bok³ · Kim, Joo-Hyun⁴ · Park, Young-Sook⁵
Son, Haeng-Mi⁶ · Lee, Eun-Hee⁷ · Lim, Nan-Young⁸ · Cho, Kyung-Sook⁹ · Han, Hye-Ja¹⁰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Incheon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Seoul

³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⁴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⁵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⁶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⁷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Wonju

⁸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¹⁰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Dangji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the formal education program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care workers for frail elderly people.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urvey in which 438 certified care workers who had completed the education program particip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October 2009,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consisting of satisfaction with, and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 program. **Results:** The participants had a mean age of 46.7 yr, 87.9% were female and 58.2% were high school graduates. For the theory part of the education, the highest score for understanding was for 'supporting household & activities of daily living' while the lowest score for understanding was for 'care for death and dying'. For the practical education, the highest score for understanding was for 'talking with the client' and the lowest score was for 'first aid & basic life suppor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arts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 **Conclusion:**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for care workers for elders, both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reas. Also the content of programs should address the weak points of this formal education program.

Key words: Care worker, Frail elderly, Educa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요양보호사 양성을 양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요양인력

보다는 요양보호지식과 기능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신설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7). 이 제도는 240시간(이론 80, 실기 80, 현장실습 80)의 단기교육(신규 1급)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연령과 학력 수준에 제한이 없기 때

주요어 : 요양보호사, 노인, 교육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an, Hye-Ja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1 Daehang-no, Jeongmi-myeon, Dangjin 343-861, Korea
Tel: 82-41-350-1344 Fax: 82-41-350-1345 E-mail: hanhj@shinsung.ac.kr

투고일 : 2010년 2월 9일 심사위원회 : 2010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28일

문에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제도 실시 이전까지 노인복지법상 요양인력은 실무교육과 실습을 받은 전문기능인력이 아닌(Han, Son, & Suh, 1998)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 간병인 등의 간호보조인력(Glaister & Blair, 2008; Jo & Kim, 2007)이었다. 따라서 사회와 보건의료계에서는 질적으로 표준화된 요양인력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여 왔다(Glaister & Blair, 2008).

간호보조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노인환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를 주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Howe (2008)는 간호보조인력에게 욕창 예방과 피부간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의 욕창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가족돌봄자에게 기초간호와 개인간호기술을 교육한 후 가족돌봄자와 뇌졸중 환자의 부담감과 불안, 우울이 감소하였고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며, 또한 1년간의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였다는 보고도 있다(Kalra et al., 2004; Patel, Knapp, Evans, Perez, & Kalra, 2004). 국내의 한 연구(Hong, Lee, Park, Cho, & Oh, 1995)에서도, 노인성 치매환자의 가족에게 치매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비전문의료인인 가족돌봄자의 지식과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 요양인력으로 단순한 수발, 간병 등의 보조업무를 하는 노무직보다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전문적 케어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것이(Yu, 2007)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전문화 훈련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질 높은 노인 요양인력이 되어야 함(Chung, 2004; Han et al., 1998)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은 2008년 말에 4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작하였으나, 요양보호사의 양성교육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 2009년 7월에는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가 거의 49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ersonal communication, July 17, 2009).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복지법 일부를 개정하여 2010년 4월 26일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국가시험제도로 변경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국가시험제도의 도입은 실제적인 현장 조사 없이 총 교육 시간의 80% 이상(192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 이수 여부와 현장실습 합격 여부만으로 자격증을 발급받고 실무현장으로 곧바로 투입되었던 2010년 4월

이전에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의 전문기능성에 대한 우려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재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재는 다양한 이론과 실기 및 실습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미 배출된 요양보호사로부터 현장에서의 실습 및 근무 시에 노인환자를 돌보는 데 표준교재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체계적인 선행연구가 없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포괄성 및 교육 수혜자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우선적으로 그동안 배출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받았던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자가 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뿐만 아니라 추후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성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로서 실무에서 일하는 대상자들의 의견수렴도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제도 실시 이후 요양보호사가 이수한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평가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전문기능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이해도를 파악한다.
- 2)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다.
- 3)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대상자가 자신이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자가 평가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서 이론, 실기 및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일제나 시간제로 급료를 받고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이다.

2009년 5월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489,069명 중 요양보호시설 종사자 124,176명을 모집단으로 하고(Ministry of Health & Welfare, personal communication, July 17, 2009), 신뢰수준 95%에서 오차범위 5%의 신뢰구간으로 하였을 때 연구대상자의 수는 383명으로 추정된다(Tack et al.,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탈락을 고려하여 450명을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표본의 대표성과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국에서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서울 66명(14.8%), 인천 82명(18.4%), 경기도 30명(6.7%), 강원도 122명(27.4%), 충청도 104명(23.3%), 전라도 42명(9.4%)이었다.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는 제외하여 총 438명의 자료가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 도구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자가 평가 도구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개발하였으며,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헌고찰, 교육프로그램의 교과내용을 분석하고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수차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다.

1) 교육 만족도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이론과 실기 및 실습의 세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10 cm 시각 상사척도(VA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사용한 의미는 교육내용별 만족도보다 전반적인 만족도 파악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고, 동시에 많은 질문 문항을 읽고 대답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2) 교육 이해도

교육 이해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항목은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교재의 목차를 이용하여 세분화하였다. 이 중 주로 강의로 이루어진 이론 분야의 이해도

는 교재의 단원별로 분류하여 9개의 대항목과, 소제목 목차를 도출하여 총 1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실기 분야는 교재에서 대항목으로 12개를 분류하고 다시 34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이해도는 4점 척도로 매우 어려움, 약간 어려움, 약간 쉬움, 매우 쉬움으로 구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이론분야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실기분야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이었다.

3)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반응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주관적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은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좋은 점/장점, 개선사항 및 추가할 내용이며 개방질문형태로 구성하였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였으며, 특히 주관적 반응은 개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기술하게 하였다.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 만족도 및 이해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 만족도 및 이해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3)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반응은 내용분석을 하였다. 내용분석 방법은 속성이 유사한 응답내용을 요약화하여 명명하였고, 내용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연구팀이 함께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87.9%가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6.7세

(20-68세 범위)로 대상자의 75.2%가 40-59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58.2%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14.6%에서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의 면허 및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받은 기관은 42.9%가 사설학원이었고, 37.9%가 대학부설 기관이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복응답을 하였는데, '취업을 위해서'가 43.5%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위는 '국가자격증이므로(42.2%)'이었다(Table 1).

2.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이해도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이론교육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Program for Care Workers (N=438)

Characteristics	n (%) or M (SD)
Gender	
Male	53 (12.1)
Female	385 (87.9)
Age in years	
Less than 30	33 (7.5)
30-39	48 (10.9)
40-49	202 (46.2)
50-59	127 (29.0)
Over 60	28 (6.4)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81 (18.5)
High school	255 (58.2)
College or above	91 (20.8)
No response	11 (2.5)
Other licenses or certificates	
Yes	64 (14.6)
No	374 (85.4)
Educational institution where training was received	
Educational institute attached to a university	166 (37.9)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188 (42.9)
Religion/social welfare foundation	64 (14.6)
Medical organization (hospital, clinic)	3 (0.7)
No response	17 (3.9)
Reasons for attending the program*	
To obtain a national licence	188 (42.2)
To get a job	194 (43.5)
To help with the household economy	129 (28.9)
For voluntary service	152 (34.1)
For free time	37 (18.3)
By recommendation from significant others	61 (13.7)
Other	23 (5.2)
Satisfaction	
Theoretical education	7.7 (2.05)
Practical education in classroom (laboratory practice)	7.7 (2.16)
Practical education in fields (nursing home, community social welfare facility, etc.)	7.1 (2.30)

* Multiple responses possible.

7.7점, 실기교육 7.7점, 현장실습교육 7.1점으로 현장실습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Table 1).

연구대상자들의 이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4점 중 2.5점이었다. 가사 및 일상생활활동 지원(2.8점)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죽음과 임종 요양보호(2.1점)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점 척도의 중앙점인 2.5점보다 낮은 항목은 노인의 주요 질환 이해(2.4점), 노인의 건강상태 관찰 및 사정(2.4점), 안전 및 감염관리(2.4점)였다(Table 2).

연구대상자들의 실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2.6점으로 2.5점보다 조금 높았고 이론교육 이해도보다는 높았다. 말뱃하기(3.1점)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소생술(1.9점)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았다. 2.5점보다 낮은 항목은,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2.4점), 침상배설 돕기(2.3점), 유치 도뇨관 사용 돕기(2.2점), 죽음과 임종 요양보호(2.0점),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2.4점),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2.4점),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2.2점), 흡인(2.2점), 요양보호 대상자, 장소 특성 파악 및 서비스 계획 변경 지원(2.4점) 등이었다(Table 3).

Table 2.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Theoretical Education in the Education Program for Care Workers (N=438)

Content	M (SD)
1. Administrative system & service for care workers	2.5 (0.66)
2. Occupational ethics of care workers	
2-1. Purpose, ethical principles, & self-management of care workers	2.5 (0.70)
2-2. Human rights & abuse of elders	2.6 (0.72)
3. Understanding the clients	2.6 (0.75)
4. Basic knowledge of medicine & nursing	
4-1. Understanding of major geriatric disease	2.4 (0.81)
4-2. Assessment & observation of the health state of frail elders	2.4 (0.75)
4-3. Health promotion & prevention for frail elders	2.5 (0.74)
4-4. Understanding visiting nursing service	2.5 (0.69)
5. Basic skills for caring	
5-1. Intake	2.6 (0.78)
5-2. Elimination	2.5 (0.84)
5-3. Personal hygiene & environment	2.7 (0.80)
5-4. Position change & transfer	2.6 (0.88)
5-5. Safety & infection control	2.4 (0.79)
5-6. Care for death & dying	2.1 (0.91)
6. Supporting household work & activities of daily living	2.8 (0.75)
7. Communication & supporting leisure activities	2.6 (0.73)
8. Utilizing personnel and institutional resources	2.5 (0.72)
9. Documentation & reporting	2.5 (0.77)
Total	2.5 (0.53)

Table 3.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Practical Education in the Education Program for Care Workers (N=438)

Content	M (SD)
1. Basic & ethical principles for care workers	2.5 (0.70)
2. Assessment & observation of the basic health state of frail elders	2.4 (0.67)
3. Care related to intake	
3-1. Assist with meals (oral, parenteral)	2.5 (0.79)
3-2. Assist with medication & monitoring drugs	2.8 (0.72)
4. Care related to elimination	
4-1. Assist with toileting	2.6 (0.81)
4-2. Assist with toileting in bed	2.3 (0.91)
4-3. Assist with commode	2.5 (0.85)
4-4. Assist with diapers	2.5 (0.85)
4-5. Assist with indwelling urinary catheter	2.2 (0.85)
5. Care related to personal hygiene & environment	
5-1. Assist with washing hair, mouth, hands, feet, & pubic region	2.6 (0.78)
5-2. Assist with washing face & bathing	2.6 (0.81)
5-3. Assist with clothing	2.8 (0.72)
5-4. Maintaining comfortable environment (ex: maintaining a clean bedroom)	2.8 (0.73)
6. Care related to position change and transfer	
6-1. Assist with moving in bed	2.5 (0.78)
6-2. Assist with ambulating using wheelchair	2.7 (0.78)
6-3. Assist with walking	2.8 (0.73)
6-4. Assist with moving using walking devices (cane, walker etc.)	2.5 (0.80)
7. Care for death and dying	2.0 (0.86)
8. Documentation & reporting	2.4 (0.77)
9. Care for safety & infection control	
9-1. Prevention of falls	2.4 (0.74)
9-2. Providing first aid	1.9 (0.80)
9-3. Prevention of infection & pressure ulcers	2.2 (0.77)
9-4. Cleaning airway	2.2 (0.79)
10. Supporting household work & activities of daily living	
10-1. Understanding of purposes, function, and basic principles of supporting household & activities of daily living	2.7 (0.69)
10-2. Preparing meals & healthy diet	2.7 (0.70)
10-3. Maintaining hygiene (ex: foods, tablewares, etc.)	2.9 (0.63)
10-4. Cleaning clothes & bedding	2.9 (0.70)
10-5. Supporting going out & daily activities	2.8 (0.76)
10-6. Maintaining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2.9 (0.70)
11. Communication & supporting leisure activities	
11-1. Talking with the client	3.1 (0.71)
11-2. Facilitating communication	2.9 (0.70)
11-3. Helping with leisure activities	2.9 (0.69)
11-4. Establishing rapport & communication	2.7 (0.75)
12. Utilizing personnel and institutional resources	
12-1. Providing information about service plan &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client and institution	2.4 (0.78)
Total	2.6 (0.51)

3.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및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학력에 따라 이론교육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32.25, $p<.001$), 중졸(8.3점)과 고졸(7.8점)이 전문대졸 이상(7.1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실기 교육 만족도는 연령, 학력, 면허(자격)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사후 검정된 결과 60대 이상(8.5점)이 30대(6.9점)보다 실기교육 만족도가 높았으며(F=3.39, $p=.010$), 중졸(8.2점)과 고졸(7.8점)이 전문대졸 이상(6.8점)보다 실기교육 만족도가 높았다(F=46.98, $p<.001$). 면허(자격)가 없는 대상자(7.8점)가 있는 대상자(7.2점)보다 실습 만족도가 높았다($t=2.00$, $p=.046$). 현장실습 교육 만족도는 성별, 연령, 학력 등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7.9점)가 여자(7.0점)보다 현장실습 만족도가 높았으며($t=2.50$, $p=.013$), 연령에서 50대(7.6점)와 60대 이상(8.2점)이 30대(6.13점)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고(F=5.40, $p<.001$), 중졸(7.6점)과 고졸(7.2점)이 전문대졸 이상(6.5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F=28.88, $p=.004$)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이론교육 이해도는 성별, 학력과 면허(자격) 유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요양보호사(2.7점)의 이해도가 여자(2.5점)보다 높았으며($t=2.56$, $p=.011$), 학력에서 사후검정 결과 중졸(2.3점)이 고졸(2.5점)이나 전문대졸 이상(2.6점)보다 이해도가 낮았다(F=11.80, $p<.001$). 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 면허가 있는 요양보호사(2.7점)의 경우 그렇지 않는 요양보호사(2.5점)보다 이론이해도가 높았다($t=-3.56$, $p=.001$). 실기교육 이해도 역시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정결과 중졸(2.4점)이 고졸(2.6점)이나 전문대졸 이상(2.6점)보다 실기교육 이해도가 낮았다(F=4.92, $p=.008$) (Table 4).

4.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주관적 반응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44명이 응답하였다. 1가지 이상을 기술한 대상자가 있었으며 총 50개의 기술내용이 분석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 측면에서 건강관련 정보 및 지식 습득(영양, 위생, 감염 및 욕창 예방, 응급처치 등)이 10명(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특성 및 노인 질환에 대해 이해한 것(7명, 14.0%)도 좋은 점으로 기술되

Table 4 .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and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 Program for Care Worker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38)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on theoretical education			Satisfaction on practical education			Satisfaction on practical education in fields			Understanding theoretical education			Understanding practical education		
	M (SD)	t/F	p	M (SD)	t/F	p	M (SD)	t/F	p	M (SD)	t/F	p	M (SD)	t/F	p
Gender															
Male	7.7 (1.99)	-0.40	.698	7.9 (2.23)	0.77	.442	7.9 (2.06)	2.50	.013	2.7 (0.48)	2.56	.011	2.7(0.50)	1.62	.106
Female	7.8 (2.06)			7.6 (2.16)			7.0 (2.33)			2.5 (0.53)			2.6(0.51)		
Age in years															
Under 30 ^a	7.3 (1.83)	1.85	.119	7.6 (1.80)	3.39	.010	7.2 (2.11)	5.40	<.001	2.4 (0.37)	0.95	.435	2.4(0.38)	1.12	.347
30-39 ^b	7.3 (2.48)			6.9 (2.58)		(b<c)	6.1 (2.38)		(b<d,e)	2.6 (0.42)			2.7(0.51)		
40-49 ^c	7.7 (2.14)			7.6 (2.25)			7.0 (2.42)			2.5 (0.56)			2.6(0.51)		
50-59 ^d	8.0 (1.84)			8.0 (1.91)			7.6 (2.02)			2.5 (0.56)			2.6(0.54)		
Above 60 ^e	8.2 (1.42)			8.5 (1.58)			8.2 (1.91)			2.5 (0.52)			2.6(0.50)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a	8.3 (1.85)	32.25	<.001	8.2 (1.91)	46.98	<.001	7.6 (2.11)	28.88	.004	2.3(0.41)	11.80	<.001	2.4(0.39)	4.92	.008
			(a,b>c)			(a,b>c)			(a,b>c)			(a<b,c)			(a<b,c)
High school ^b	7.8 (2.08)			7.8 (2.18)			7.2 (2.29)			2.5(0.58)			2.6(0.57)		
College or above ^c	7.1 (1.93)			6.8 (2.08)			6.5 (2.39)			2.6(0.39)			2.6(0.40)		
Licenses or certificates															
Yes	7.4 (2.04)	1.61	.108	7.2 (2.23)	2.00	.046	6.9 (2.50)	1.10	.274	2.7(0.42)	-3.56	.001	2.7(0.48)	-1.75	.081
No	7.9 (2.00)			7.8 (2.08)			7.3 (2.23)			2.5(0.54)			2.6(0.52)		

a, b, c, d, e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by scheffe test.

었다. 기술 측면에서 가정에서 기본요양보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기술하였으며, 태도 측면에서는 삶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된 점이 6명(12.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함양 또는 봉사정신 함양, 대상자와의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향상, 요양보호사의 중요성 인식을 기술하였다. 그밖에 이론/실기/현장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5명(10.0%)과 간호학교수의 강의가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제한점에 대해서는 34명의 대상자가 기술하였다. 총 34개의 기술내용이 분석되었으며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들과의 레크리에이션 내용 부족(노래, 종이접기, 한글교육)이 12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충분한 실기실습, 표준교재의 불충분한 내용(중복적 내용, 책 내용 빈약), 실제 업무와 교육내용과의 괴리, 학습내용의 어려움, 짧은 교육기간, 기타로 너무 엄격함, 너무 긴 교육기간을 기술하였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44명의 대상자가 기술하였다. 총 44개의 기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내용의 심화 및 추가(외국 선진사례, 윤리강령, 치매, 임종, 상담, 호스피스, 교양과목, 봉사정신, 응급처치, 노인복지, 심리상담, 중증환자 간호, 외상환자간호, 이·미용 기술, 음악요법, 미술치료, 발마사지 등)가 26명(5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습교육 강화(적절한 실습물품 구비, 흡인실습과 문제해결 실

습, 부적당한 실습장소 변경)(8명, 18.2%), 요양보호사의 명확한 역할 또는 자격 정립(연령제한, 국가시험 도입)(6명, 13.6%), 교육방법 개선(쉽게, 되풀이해서, 체계적인 강의, 수준 높은 강사와 시청각자료준비)(4명, 9.1%) 등을 기술하였다(Table 5).

논 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가족들이 담당해왔던 중증의 노인환자에 대한 간병수발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부는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요양보호 인력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Jeong & Kwon, 2009). 그러므로 전문성을 가진 요양보호사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대다수(87.9%)가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46.7세이었고 교육수준은 과반수(58.2%) 이상이 고졸이었는데, 선행연구(Cho et al., 2008; Ju, 2009; Park, 2007; Weon, 2008)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은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의 80% 이상이 여성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요양보

Table 5. Benefits and Limitations of the Education Program for Care Workers

Domain	Contents	n (%)
Strengths*		n=50
Knowledge	Understanding of health related information & knowledge	10 (20.0)
	Understanding of elderly client & geriatric disease	7 (14.0)
Skill	Utilization of basic care skills at home (intake & elimination, position change, first aid, helping family)	9 (18.0)
Attitude	Positive changes for life	6 (12.0)
	Encouraging public service role or service mind as care workers	5 (10.0)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with clients	5 (10.0)
	Establishing a vocational identity as care workers	1 (2.0)
Other	Comprehensive education about theory, practice, & internship in the field	5 (10.0)
	High quality lecture by nursing professors	2 (4.0)
Limitations		n=34
Limitations	Lack of content in recreation for frail elders	12 (35.3)
	Insufficient or lack of actual practicum	7 (20.6)
	Insufficient content in the textbook (overlapping or poor in content, etc)	4 (11.7)
	The gap between laboratory practice and fields practice in education program	3 (8.8)
	Difficult learning content (theory or practice)	2 (5.9)
	Inadequate period of time for education program	2 (5.9)
	Low quality in lectures	2 (5.9)
	Others (too strict/too long an educational period)	2 (5.9)
Demands		n=44
Demands	In-depth information and adding new content	26 (59.1)
	Strengthening practical education	8 (18.2)
	Establishing definite role or qualification as care workers	6 (13.6)
	Improvement in teaching methods (needs for further education)	4 (9.1)

*Multiple responses possible.

호사 양성교육을 받은 이유가 ‘취업을 위해’가 43.4%, ‘국가 자격증이므로’가 42.2%를 차지하였다. Park (2007)은 기존 인력의 특성과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여성 요양보호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요양보호사 양성은 중년기 이후의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복지서비스형 안정적인 공익일자리가 생겨나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켜 사회 유휴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고용창출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이론교육 7.7점, 실기교육 7.7점, 현장실습교육 7.1점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좀 더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

선책을 마련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론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가사 및 일상생활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년의 여성이므로 실제적인 가사 활동은 늘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죽음과 임종요양보호’, ‘노인의 주요 질환 이해’, ‘노인의 건강상태 관찰 및 사정’, ‘안전 및 감염관리’ 등이 낮았는데, 이 결과는 노인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표준교재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Ju, 2009)에서 노인의 주요 질환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임종요양의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대상자의 평균 학력이 고졸이고, 짧은 교육시간 등이 기초적인 의료지식을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의 노인 수발사는 다년간의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을 거쳐 배출되고, 일본의 개호복지사는 일정 자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반면(Lee, 2008), 2010년 4월까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240시간의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에 대한 검증 없이 바로 신규 1급 자격증을 얻을 수 있어 향후 노인 간호의 질적 저하는 물론 일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노인 요양서비스와 더 나아가서는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에 대한 보완책으로 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증 시험제도 도입이 이루어진 것은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수적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실기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말벗하기’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응급처치와 기본소생술’과 같은 의학적인 처치보다는 덜 어렵고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Lee (2008)의 요양보호사 전문성 향상 방안의 연구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가 정서지원(말벗, 상담 여가지도)이며, Park (2007)의 연구에서 시설 수발자가 간병활동 시 말벗하기가 98.1%로 일상생활기능 수행의 지원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결과를 보면 실제 현장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간병 서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정서적 지원이나 가사 지원을 하고 있어 ‘말벗하기’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에 필수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족, 간병인, 간호사가 인지하는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의 중요도(Cho et al., 2008)에서도 간병인이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수발 및 가사지원 영역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였다.

실기교육에 대한 이해도에서도 ‘응급처치와 기본소생술’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Uhm과 Sung (2009)의 연구에서 노인 수발 담당자들이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 교육의 수요도가 높은 결

과에서와 같이 대상자들이 응급처치 등이 중요하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응급처치나 기본소생술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또한 교육만족도보다 교육이해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후 이들의 실제적인 업무에 대한 분석 및 업무환경, 업무 만족 등에 대한 효과 검증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주로 연령과 학력이었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만족도가 중졸과 고졸이 전문대졸 이상보다 높게 나온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Weon, 2008)에서도 중졸과 고졸의 대상자가 이론교육이나 재가 장기요양실습기관 실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고졸 이하 학력의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함으로써 국가자격증이 부여되어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이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수준이 평이함을 의미하면서도 학력이 아주 높으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Weon).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제도 이전까지 간병인이나 가정봉사원 등은 실무교육과 실습을 받은 인력이 아니었고(Han et al., 1998), 국내에서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서는 교육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실기교육 만족도에서 60대 이상이 30-40대보다 실기교육 만족도가 높았으며, 현장실습 교육 만족도에서도 50-60대 대상자와 60대 이상 대상자가 30-40대 대상자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30대 이하의 연구대상자보다 30대 이상의 연구대상자들의 이론 및 실기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는데 이는 신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 등이 복합된 노화현상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노인들을 모시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얻어진 것이라 생각되며, Weon (2008)의 연구에서도 재가 장기요양기관 실습에서 40-50대가 30대 이하보다 좀 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장년층 여성의 인생경험이 노인 대상자에 대한 적응력을 높게 해주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론교육 이해도에서 중졸이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보다 이해도가 낮았고, 실기교육 이해도도 중졸이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보다 낮았는데, 이는 Chung (2008)의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주관적 삶의 질과 통제위 성격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중졸 이하의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요양보호사 양

성교육 시 이해도가 낮은 경우 현장에서 노인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업무를 수행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Glaister와 Blair (2008)는 수준 낮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간호보조인력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시설노인들의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시 이해도가 낮은 요양보호사의 배출은 전반적인 노인간호에 대한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자격은 학력, 나이에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출신부터 70세 이상의 노인들도 가능하고, 기 배출된 요양보호사를 위해 '어느 수준의 학생에게 교육내용을 맞춰 구체적으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보수교육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가'는 실무능력 향상에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본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학력을 최소한 고졸 이상으로 제한하고, 요양보호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실제적인 교육이 강화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요양보호사의 교육에서는 대상자 학력에 대한 사전 조사 후에 강의 수준과 접근을 결정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확인과 반복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내용의 좋은 점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노인특성 및 노인 질환에 대한 지식습득을 언급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도 노인의 특성 및 건강에 대한 정보, 감염 예방 등 건강과 같은 의의지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노인의 요양업무에 필수적인 내용이라 인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Ju (2009)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과 실기과목이 가장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가정에서의 기본요양보호기술 활용을 좋은 점으로 언급한 점은 가정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밖에 대학부설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대상자들이 간호학교수의 강의의 질이 좋았다는 평가는,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체계가 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나머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교육부설, 자격취득을 위한 진입통로의 무제한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성교육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강사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실습시설, 교과과정의 검증 없이 시행한 교육기관 인정으로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와 체계적으로 교육시스템이 정비된 곳을 선호한다(Weon, 2008)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기술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제

한점으로는 노인들과의 레크리에이션 내용의 부족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불충분한 실기실습과 표준교재의 불충분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교육내용의 심화 및 추가를 요구하였고, 이의 내용에는 현행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치매 질환 및 간호, 임종요양보호, 응급처치 등)을 심화해주기를 원하고 있었고, 중증환자 간호부터 이·미용 기술, 발마사지 등 연구대상자들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의 폭이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습교육의 강화를 요구하여 적절한 실습물품을 구비하는 것, 부적당한 실습장소의 변경 등을 기술하는 것은 2010년 현행 요양보호사교육 양성지침 이전의 실습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명확한 역할 및 자격 정립을 연구대상자 스스로 요구하고 있으며, 연령제한이나 국가시험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 명의 대상자는 의약품관리를 알려달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요양보호사의 명확한 역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명확한 업무분석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분명해지면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연령과 학력 제한을 고려하는 자격조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은 가능한 한 요양보호사의 실제업무와 괴리가 없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컴(DACUM: Developing a Curriculum)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연구대상들의 교육내용별 이해도와 그들이 언급한 주관적 반응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깊이 있는 강의를 위해 교육내용의 비중을 조절할 수도 있고, 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기본요양보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넷째, 표준교재 수준은 요양보호사의 학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고려하여야 하고, 핵심 업무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청각자료 등 적절한 교육자료 준비와 교육방법으로 교육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여섯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이론과 실무능력의 부족과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보수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취득 후 2년 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용의 보완이나 시간

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자가 평가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이해도, 그리고 주관적 반응을 확인하여 더 나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주로 40-60세인 고졸 여성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를 가져와 요양보호사 자격 도입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대상자들의 이론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가사 및 일상생활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였고, '죽음과 임종 요양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았다. 실기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말벗하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응급처치와 기본소생술'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았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만족도는 중졸과 고졸이 전문대졸 이상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이해도는 중졸이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보다 낮았다. 그러므로 학력에 따라 이해도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교재의 내용 보완 또는 재조정이 필요하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이론과 실무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S

- Cho, N. O., Ko, S. H., Kim, C. G., Yang, S., Oh, K. O., Lee, S. J., et al. (2008). The level of importance on education of long term care nursing assistants perceived by caregivers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 127-137.
- Chung, S. B. (2004).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aregiver training programs and reforms of the elderly caregiving. *Th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14, 71-92.
- Chung, Y. S. (2008). A study of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locus of control of caregiver traine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 117-126.
- Glaister, J. A., & Blair, C. (2008). Improv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nursing assistants: Keys to promoting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home resident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9, 863-872.
- Han, D. H., Son, T. H., & Suh, H. J. (1998). Review of caregiving programs and caregivers' training programs for the elderly to promote national caregiving system in Ko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8, 59-74.
- Hong, Y. S., Lee, S. J., Park, H. A., Cho, N. O., & Oh, J. J. (1995).

-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are giver education program on the home care of senile dementia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5, 45-60.
- Howe, L. (2008). Education and empowerment of the nursing assistant: Validating their important role in skin care and pressure ulcer prevention, and demonstrating productivity enhancement and cost savings. *Advances in Skin & Wound Care*, 21, 275-281.
- Jeong, M. H., & Kwon, S. S. (2009).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s of certified caregiver traine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Nursing*, 11, 51-61.
- Jo, J. J., & Kim, Y. K. (200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daptation experience of care-workers for caring elderly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Womens Health*, 8(2), 1-27.
- Ju, M. S. (2009). *Research on make substantial of education for care worker: Focusing on the content analysis of standard tex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Kalra, L., Evans, A., Perez, I., Melbourn, A., Patel, A., Knapp, M., et al. (2004). Training carers of stroke patients: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ritish Medical Journal*, 328, 1099-1101.
- Lee, H. D. (2008). *A study on enhancement of the nursing home worker's professional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7). *Guide of training education program for care-givers*. Seoul: Author.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July 17, 2009). Personal communication, archived at <http://mail2.daum.net/hanmail/Index.daum>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A revision of law of welfare for the aged*. Retrieved February 4, 2010, from <http://www.mw.go.kr/front/jc/sjc060204vw.jsp>
- Park, Y. R. (2007). Care worker's needs and the long term care policy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3, 27-56.
- Patel, A., Knapp, M., Evans, A., Perez, I., & Kalra, L. (2004). Training care givers of stroke patients: Economic evaluation. *British Medical Journal*, 328, 1102-1104.
- Tack, Y. R., Kang, K. A., Kim, J. H., Kim, T. K., Kim, H. O., Song, J. H., et al. (2009). *Introduction to statistics for nurse*. Seoul: For-nurse.
- Uhm, D. C., & Sung, S. K. (2009). A study on the need for emergency care education in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 53-61.
- Weon, H. S. (2008). *A study on the educ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home hel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 Yu, D. S. (2007). *A study on care-giver manpower for Korea long term care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Kumsan.